

루이 베르트랑과 식민 파시즘*

김 용 우

I. 서론

“말년에 그는 학술원에 들어오면서 동료들을 향해 팔을 쳐들며 ‘하일 히틀러(Heil Hitler)’ 라고 외쳤다.”¹⁾ 동료 학술원 회원들은 말년의 루이 베르트랑(Louis Bertrand, 1866-1941)을 이렇게 기억했다. 역사와 권위를 사랑하는 프랑스 학술원(l’ Académie française) 건물 안에서 나치식 경례를 공공연하게 했던 베르트랑의 행위는 동료들에게는 기묘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우연이 아니다. 1935년 9월 그는 뉘른베르크(Nürnberg)에서 열린 나치 전당대회를 직접 보고, 이듬해 그 행사뿐 아니라 히틀러와 나치 이데올로기를 다룬 책을 출간했다. 거기서 자신은 “히틀러주의자가 아니며 프랑스인이 히틀러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나에게서 어불성설” 이라면서도 히틀러의 삶과 생각, 그리고 나치 이데올로기에 깊은 공감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²⁾ 프랑스의 한 역사가는 베르트랑의 업적과 활동을 그의 “친(親)히틀러주의” 로 축소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나는 오히려 파시즘이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베르트랑의 이념과 믿음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³⁾ 베르트랑이 『히틀러』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는 사실을

* 이 논문은 한국교원대학교 2023학년도 연구년교수 학술지원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임.

1) Maurice Garçon, *Journal 1939-1945* (Paris: Perrin/Tempus, 2017), p. 1039; François Mauriac, *Le nouveau bloc-notes, 1961-1964*, Vol 3(1968), p. 351.
 2) Louis Bertrand, *Hitler* (Paris : Fayard, 1936), p. 41.
 3) Olivier Dard, “Conclusions,” Éric Goergin, dir., *Un écrivain français entre Europe et Afrique: Louis Bertrand 1866-1941* (Le Chesnay: Via Romana, 2022), p. 252.

널리 알려졌지만, 정작 이 책 자체는 세밀한 분석 대상이 되지 못했다.

로렌(Lorraine) 출신인 베르트랑은 독일에 대한 복수심과 동시에 프랑스 민족이 정치, 사회, 지적인 면에서 쇠퇴하고 몰락하고 있다는 강박관념을 또래 극단적 민족주의자들, 모리스 바레스(Maurice Barrès, 1862-1923), 샤를르 모라스(Charles Maurras, 1868-1952)와 함께 지니고 있었다. 바레스의 사망으로 프랑스 학술원의 빈자리를 이어받은 베르트랑은 1926년 수락 연설에서 프랑스 민족을 위협하는 외부와 내부의 세력은 “야만인”이며 이들에 대해 “적개심(sens de l'ennemi)”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같은 로렌 출신인 바레스와 공유한다고 밝혔다.⁴⁾

그러나 바레스와는 달리 베르트랑이 프랑스 민족의 재생 가능성을 발견한 곳은 식민지 알제리였다. 파리고등사범을 졸업하고 1891년 알제(Alger) 고등학교에 부임한 베르트랑은 1900년까지 10년간 식민지에 머물렀다. 1830년 시작된 프랑스의 알제리 정복 전쟁은 제노사이드 수준으로 치달았다. 정복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1875년, 전투에 가담했던 알제리인 사망자 수가 많게는 825,000명가량이며 기아와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합치면 그 수는 훨씬 웃돌았다.⁵⁾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1830년 알제리 전체 인구를 300만에서 400만 정도로 잡을 때, 전투에 가담한 사람만 따지더라도 약 1/4에서 1/3 정도의 인구가 사라진 셈이다. 반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를 비롯해 식민지로 이주한 유럽인의 숫자는 늘어났다. 베르트랑이 머물던 1896년 알제리에는 프랑스 출신의 이주민 수가 318,137명, 그 외 유럽 국가 출신 이주민은 211,580명, 유대인의 수는 48,763명 정도였다.⁶⁾ 유대인들은 1870년 법, 유럽 이주민들은 1889년 법으로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했다. 베르트랑의 체류 기간 식민지에는 프랑스인을 중심으로 기독교계 유럽인이 식민자로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었고 압도적 다수의 무슬림계 선주민(아랍인, 베르베르인), 유대인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베르트랑이 식민주의를 발판으로 삼아 프랑스 민족주의에 새로운

4) Louis Bertrand, “Discours de réception (le 25 novembre 1926),” <https://www.academie-francaise.fr/discours-de-reception-de-louis-bertrand> (검색일 : 2023년 9월 12일).

5) James McDougall, *A History of Alger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 80.

6) Kamel Kateb, *Européens, “indigènes” et Juifs en Algérie (1830-1962)* (Paris: Ined, 2001), p. 187.

차원을 부여했다고 자평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이러한 알제리였으며 이 점이 자신과 바레스의 민족주의가 갈라지는 분기점이라 자신했다. “오늘날 그토록 자주 언급되는 프랑스인의 조국은, 일부에서 우리에게 믿음은 강요하듯이, 죽은 자들이 묻힌 곳이 아니다. 조국은 우리 육군과 해군이 가로지른 세계의 모든 장소이다.” 7)

베르트랑의 처녀작이자 출세작인 『인종의 피』는 민족주의와 식민주의의 독특한 결합을 알리는 서막이었다.⁸⁾ 뒤이은 아프리카 연작 소설에서 그는 “라틴 아프리카(Afrique latine)”, “재야만화(rebarbarisation)”, “적개심”, “새로운 라틴인(neo-Latin)” 과 같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념을 가다듬었다. 알제리를 떠난 뒤에도 그는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평론, 여행기, 역사에 걸쳐 왕성한 저작 활동을 이어 나갔다. 그러나 베르트랑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식민주의의 맥락에 한정되어 있다. 예컨대 베르트랑이 알제리 식민 소설의 선구자로서 알제리주의(Algérianisme)로 알려진 식민 소설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극단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무슬림 혐오를 바탕으로 프랑스인과 유럽 출신 식민자를 우상화했고, 북아프리카에서 이슬람 문명의 흔적을 지우고 지중해를 단일한 서구 문명의 공간으로 만들었으며, 지중해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예컨대 알베르 카뮈(Albert Camus),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 등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 등이 그러하다.⁹⁾

7) Louis Bertrand, *La Cina* (Paris: Ollendorf, 1901), p. XI.

8) Louis Bertrand, *Le sang des races* (Paris: Ollendorf, 1899).

9) Rabah Belamri, *L' Oeuvre de Louis Bertrand. Miroir de l'idéologie colonialiste* (Alger: Office des publications universitaires, 1980); Ahmed Lanari, *La littérature algérienne de l' entre-deux-guerres. Genèse et fonctionnement* (Paris: Publisud, 1995); Patricia Lorcin, *Imperial Identities. Stereotyping, Prejudice, and Race in Colonial Algeria* (Lincoln and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5); Peter Dunwoodie, *Writing French Alger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atricia Lorcin, “Decadence and Renaissance: Louis Bertrand and the Concept of Rebarbarisation in *Fin de Siècle* Algeria,” Kay Chadwick, Timothy Unwin, eds., *New Perspectives on the Fin de Siècle in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y France* (Lewiston: The Edwin Mellen Press, 2000), pp. 181-197; Patricia Rorcin, “Rome and France in Africa: Recovering Colonial Algeria’s Latin Past,” *French Historical Studies*, 25-2(2002), pp. 295-329; Caroline Ford, “The Inheritance of Empire and the Ruins of Rome in French Colonial Algeria,” *Past & Present*, 226, supplement 10 (2015), pp. 57-77.

베르트랑에게 알제리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식민지들은 일종의 이념적 실험실이었다. 북아프리카가 한때 고대 로마의 속주였다는 점에 착안해 라틴 아프리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서 그때까지도 라틴 문명이 살아 숨 쉬고 있다고 믿었던 베르트랑의 경우는 당시 프랑스의 민족주의가 어떻게 제국주의, 식민주의와 결합했는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이다. 동시에 그의 이념은 식민지를 넘어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녔다. 사실상 베르트랑의 경우는 식민지를 배경으로 탄생한 민족주의가 과시즘의 풍부한 토양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이기도 하다. 이미 1925년 한 평자는 베르트랑의 자서전을 비평하면서 그에게 파시스트라는 이름을 붙였다.¹⁰⁾ 이후 일부 역사가 역시 이 점에 주목했지만, 베르트랑을 간략하게 다루는 정도에 그치거나 파시즘과 베르트랑의 이념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않았다.¹¹⁾ 그러나 베르트랑의 『히틀러』는 뉘른베르크 나치 전당대회에 대한 공감적인 참관기 혹은 러시아 볼셰비즘에 대항하기 위해 한때 적이었던 독일과 프랑스의 연합을 촉구하는 격문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 있다. 『히틀러』는 알제리 식민지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진 베르트랑의 민족주의가 어떻게 나치즘에 대한 공감적 통찰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준다.

II. 라틴 아프리카

베르트랑은 자신의 아프리카 연작 소설이 이런 업적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서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라틴 아프리카 개념이었다.¹²⁾ 식민지 알제리를 포함해 북아프리카를 라틴 아프리카로 이름 짓는 이런 도발적인 시도는 이 지역이 한때 고대 로마의 속주였다는 역사적 맥락에 근거한 것이다. 프랑스의 알제리 정복 전쟁은 폐허로 남아있던 고대 로마의 유적과

10) Louis Jalabert, “Compte rendu de *Jean Perbal*,” *Études*, 62e année, tome 184, no. 15 (5 août 1925), p. 379, Peter Dunwoodie, “Louis Bertrand: Autopsie d’une dérouté,” *Études françaises*, 57-1(2021), p. 99에서 재인용.

11) Stephen Wilson, “The ‘Action Française’ in French Intellectual Life,” *The Historical Journal*, 12-2(1969), pp. 344-346; Samuel Kalman, *French Colonial Fascism. The Extreme Right in Algeria, 1919-1939* (New York : Palgrave Macmillan, 2013), pp. 7-11.

12) Louis Bertrand, *Les villes d’or. Afrique et siècle antiques* (Paris : Fayard, 1921), p. 6.

유물을 발굴, 분류, 수집, 해석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정복 전쟁과 발맞추어 나갔던 프랑스 고고학은 알제리가 고대 로마의 옛 영토였다는 점만을 부각함으로써 이슬람과 아랍의 역사를 지우고 점령과 식민화를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명백히 식민주의 고고학이었다.

알제리에서 로마 유물의 발굴을 주도한 사람이 주로 프랑스 장교였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미지의 땅에서 전투를 지휘했던 장교들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고대 로마 문헌에서 찾았다. 에콜 폴리테크니크(École polytechnique) 같은 사관학교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교육은 필수였고 생도들은 스트라보(Strabo), 폴리비우스(Polybius), 살루스티우스(Sallustius), 타키투스(Tacitus), 리비우스(Livius)의 저작에 익숙했다. 그중에서도 포에니 전쟁을 다룬 리비우스와 살루스티우스가 흔히 활용되었고 원주민을 다룬 정보는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에서 얻었다. 반면 이븐 바투타(Ibn Batuta), 이븐 칼둔(Ibn Khaldun) 같은 아랍 저자들은 기본적으로 언어 장벽 때문이지만 다른 이유에서도 배제되었다. 당시 유명한 지리학자였던 에밀-펠릭스 고티에(Émile-Félix Gautier)는 이렇게 썼다. 이븐 칼둔은 “천재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다르게 기능하는 동방의 두뇌를 가졌다. 그는 리비우스나 폴리비우스처럼 읽힐 수 없다...그는 해석되어야 한다.”¹³⁾ 프랑스 군대가 주도한 로마 유적 발굴과 유물 수집 활동은 도서관, 학회 수립의 기반이 되었다. 전쟁을 위해 고대 로마인이 만든 도로, 요새, 저수지, 수도교뿐 아니라 필사본, 금석문 역시 활발하게 수집되었다. 정복이 시작된 지 5년 후인 1835년 알제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Alger)이 만들어졌고 1853년 콩스탕틴고고학회(Société archéologique de Constantine), 1856년 알제리역사학회(Société historique algérienne)가 뒤를 이었다. 점차 이슬람의 역사는 자취를 감추고 까마득한 고대 로마의 역사가 프랑스 식민지 알제리의 건국 신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¹⁴⁾

베르트랑이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스럽게 내세운 라틴 아프리카 개념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베르트랑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장

13) Émile-Félix Gautier, “Le cadre géographique de l’histoire en Algérie,” J. Alazard, et al., *Histoire et historiens de l’Algérie* (Paris: Librairie Félix Alcan, 1931), p. 19.

14) Rorcin, “Rome and France in Africa.”

교-고고학자가 드러낸 아프리카는 고대 로마의 아프리카에 지나지 않는다. 장교-고고학자는 과거와 현재의 아프리카 사이를 오히려 단절시켰다. 그러나 자신이 제시한 라틴 아프리카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연결된다. 라틴 문명의 보금자리인 라틴 아프리카는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살아 숨 쉬는 아프리카이다. 이슬람과 아랍의 장식을 벗겨버리고 나면 새로운 아프리카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데, 이 아프리카는 지중해의 라틴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다.

반대로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다. 즉 중단은 없었으며 아프리카는 무슬림의 복장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라틴적이지 않은 적이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랍 혹은 오리엔트라고 믿는 관습, 건축, 장식, 생활 용구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명백히 라틴적인 것들이다.¹⁵⁾

베르트랑은 두 가지 역사 만들기 작업을 통해 라틴 아프리카에 역사적 근거를 확보하려 했다. 먼저 고대 아프리카 역사 전체를 라틴 문명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포에니 전쟁이 벌어질 무렵 아프리카는 이미 라틴 국가였다. **로마인이 이곳에 오기 오래전 아프리카는 라틴화, 달리 말해, 문명화되어 있었다.** 우리가 라틴 문명이라 부르는 것은 서부 지중해 지역에 적응한 그리스 문명이다.”¹⁶⁾ 로마 역시 라틴 문명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로마의 지배 이전에 아프리카가 라틴화되었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베르트랑에 의하면 로마의 아프리카 정복과 프랑스의 그것 사이의 차이도 여기에 있다. 로마가 아프리카에 왔을 때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로마와 최소한 유사한 수준의 문명이었다면 프랑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다음으로 베르트랑은 북아프리카에서의 이슬람과 아랍의 역사를 탈역사화한다. 그가 볼 때, 7세기경 아랍의 침략은 아프리카에 뿌리내린 라틴 문명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못했다. 비참과 만성적인 전쟁과 야만성을 제외하고 그들이 가져온 것이라고는 새로운 종교적 교의로, 관습이나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주었지만, 물질적인 삶의 양식은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 “천막의 사람들”은 오히려 정복지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서 과학, 예술,

15) Louis Bertrand, *Les villes d'or*, p. 344.

16) Louis Bertrand, *Les villes d'or*, p. 377, 강조는 원문.

도시 조직에 대해 배우고 수용해야 했다. 베르트랑에게 “이슬람은 종교이지 문명이 아니다.”¹⁷⁾

베르트랑은 흔히 이슬람 고유의 관습, 건축, 상징마저 라틴 문명의 모방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자. 쿠스쿠스(couscous)는 본래 카르타고의 요리이며 대(大)카토(Cato the Elder), 그리고 플라우투스(Plautus)의 저작에도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기원전 2세기경 로마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이슬람의 상징인 초승달, 금주, 돼지고기 금식, 모두 카르타고-라틴의 관습을 모방한 것이다. 이슬람 사원 건물인 모스크는 초기 기독교의 바실리카 양식 교회당 건물을 변형한 것이다. “유목민으로 천막 아래 살았던 아랍인은 건축가가 아니었다.”¹⁸⁾ 비슷한 것이 먼저 있으면 그것을 기원으로 삼고, 문화적 혼종을 부정하는 베르트랑의 전략은 이슬람 문명을 알맹이 없는 껍데기로 만드는 데 그 목표가 있다.

베르트랑에 의하면 아랍의 침략으로 아프리카 라틴 문명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은 사망하거나 지중해 남부 지역으로 이주했다. “새로운 종교는 학살과 추방을 통해서만 자리 잡을 수 있었다.”¹⁹⁾ 아랍의 침략 무렵 아프리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층민들이었다. 그렇지만 이들 역시 정복자의 종교에 장기간 저항했고 아프리카의 기독교는 지속했다. 베르트랑은 11세기 말 교황 그레고리우스(Gregorius) 7세 시기 카르타고에는 대주교가 있었고 14세기까지 기독교 공동체가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주장한다. 또한 지중해 건너편 쪽, 그러니까 이탈리아, 폴, 스페인, 시칠리아, 사르데냐에는 기독교 망명자들로 가득했다. 베르트랑은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역에 사라센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이주했지만, 이 사라센은 무슬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프로방스의 일부 지역에 무슬림 사라센이 침투했다는 완강한 편견이 존재한다. 이 사라센은 아프리카에서 온 기독교인이었다.”²⁰⁾

이처럼 베르트랑은 라틴 아프리카가 우연적 현상이거나 프랑스의 정복으로 생겨난 최근의 상황이 아니라 과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었다. 그에게 라틴 아프리카는 집단적인 영혼을 지닌 유기체

17) Louis Bertrand, *Les villes d'or*, p. 386.

18) Louis Bertrand, *Les villes d'or*, p. 352.

19) Louis Bertrand, *Les villes d'or*, p. 387.

20) Louis Bertrand, *Les villes d'or*, p. 387.

와 같다. “오늘날 프랑스의 아프리카는 로마의 아프리카이다. 로마의 아프리카는 가장 혼란스럽고 야만적인 시기에조차도 멈춘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 살아 숨 쉬고 있다...내가 이론 유일한 업적이 있다면 그것은...모든 시기의 아프리카를 단일한 유기체이자 하나의 집단정신이며 여러 세기에 걸쳐 이러한 아프리카의 삶이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한 데 있을 뿐이다.” 21) 베르트랑은 시기상조임을 인정하면서도 아프리카 민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자신을 입양된 아프리카인이라 자부했다.22)

따라서 아프리카의 식민화는 게르만족과 아랍인의 침략으로 망명했던 라틴인의 후손이 라틴 문명이 살아 숨 쉬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온 것, 한마디로 고토 수복이다. “아프리카로 귀환함으로써 우리가 한 모든 일은 빼앗긴 라틴 영역을 수복하는 작업이다...나는 우리 식민자에게 그들의 고귀함과 최초의 점령자라는 자격을 되돌려주었다.”

로마의 후계자로서 우리는 이슬람에 앞서는 우리의 권리를 환기한다. 찬탈자 아랍인과 심지어 이들이 노예로 만들고 개조한 원주민 앞에서 우리는 망명자의 후손을 대표한다. 이들 망명자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교회의 성유물과 기록물을 가지고 골 지역으로 이주했다. 프로콘술(proconsul)의 파스케스(fascēs)와 로마 군단의 독수리 문양의 깃발이 휘날리는 곳은 어디든 우리의 고향이다. 우리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유서 깊은 아프리카를 상징한다. 아프리카의 상징적인 기념물은 모스크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개선문이다.23)

지중해 주변의 프랑스인, 스페인, 이탈리아인 모두 고대 로마의 상속자로서 자격이 있지만 이곳으로 이주한 식민자가 라틴 아프리카의 진정한 지배자이다. 식민자야말로 “통지의 권위, 임페리움(imperium), 말하자면 로마가 남긴 유산의 으뜸가는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24)

21) Louis Bertrand, *Les villes d'or*, p. 6.

22) Louis Bertrand, *Les villes d'or*, pp. 331-332.

23) Louis Bertrand, *Les villes d'or*, p. 9.

24) Louis Bertrand, *Les villes d'or*, p. 365.

Ⅲ. 민족 갱생으로서의 재야만화

베르트랑이 알제리에서 만난 원주민에 대해 느낀 첫 번째 감정은 그들이 명백한 적이라는 자각이었다. 이러한 적개심은 독일에 점령당한 로렌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가장 위협받고 있는 지역 출신으로, 베르트랑의 표현을 빌리면 “변경의 인간(homme de la frontière)” 으로서 직감하는 것이다. 그에게 원주민은 “아무것도 잊지 않았고, 용서하지 않았으며 한시도 무장을 풀지 않은” 무서운 적이다.²⁵⁾ 원주민은 라틴 아프리카라는 공간에 살고 있지만, 라틴 문명으로부터 격리된 채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허울로만 남은 존재, 한마디로 야만인이다. 야만인은 이방인, 미개인, 문명의 적이라는 뜻이 모두 함축되어 있다.²⁶⁾ 이들이 프랑스인에게 벌일 복수극은 문명 파괴와 다르지 않다. 식민지 알제리에서 보낸 10년 동안 베르트랑은 인간의 삶은 필연적으로 외부와 내부의 적과 투쟁해야 하며 이 적은 우리가 이룩한 문명을 붕괴시킬 야만의 세력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했다.

원주민을 향한 베르트랑의 적개심은 인종주의로 합리화된다. 베르트랑은 고비노(Arthur de Gobineau)를 인용하며 인종이 존재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한다. 인종은 땅과 기후, 교육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피의 산물이다. 따라서 인종 사이의 동화는 불가능하다. 인종은 그마다 독창성을 지니고 있어서 문명의 가치, 도덕적이고 지적인 가치에서 동등하지 않다. 피의 섞임은 파국적인 결과를 낳는다. 라틴 인종과 다른 인종이 뒤섞일 때 권위와 힘은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다. 라틴 인종의 순수성을 지킬 때만 아프리카 제국 수호가 가능하다.²⁷⁾ 아래의 인용문은 베르트랑의 아랍인을 향한 인종주의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고백하건대, 나로서는 알제리에서 10년을 살았어도 아랍인들을 형제로 여기는 데 아직 익숙하지 않다...너무 많은 것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 우리는 결코 같은 인민으로 구성

25) Louis Bertrand, *Sur les routes de sud* (Paris: Fayard, 1936), p. 71.

26) Louis Bertrand, *Le sens de l'ennemi* (Paris : Fayard, 1917), p. 11.

27) Louis Bertrand, *Sur les routes de sud*, p. 218.

된 시민이 될 수 없다. 서로 대립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이 서로에게 이방인 혹은 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피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 두뇌로 인해 같은 생각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없다는 간단한 이유 때문이다.²⁸⁾

베르트랑이 볼 때, 압도적인 다수이자 섞일 수도 없는 원주민, 혹은 야만인에 맞서 라틴계 식민자는 적개심을 내면화했다. 적개심은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문명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맥락에서 등장하는 베르트랑의 “재야만화” 개념은 적개심과 함께 베르트랑 이념의 키워드를 이룬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 스스로 다시 야만인이 된다는 것은 야만인에게 짓밟히지 않기 위해 야만인을 강력하게 만드는 모든 자질을 우리에게 가져와 야만인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다.”²⁹⁾ 베르트랑은 니체를 다룬 한 글에서 식민자의 예를 통해 재야만화의 의미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안락한 삶으로 나약해지고 현실을 무시하는 도덕적, 지적 문화에 물든 문명인은 야만인과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재야만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는 일시적인 안정으로 상실한 적개심을 되찾는다. 물론 후천적으로 획득한 야만성 때문에 식민자가 야만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야만성 앞에서 그는 스스로를 문명의 사절이라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무기로 야만인과 싸우고 그를 굴복시키는 것뿐이다. 야만인의 영혼과 그 폭력성, 그리고 속입수를 알고 있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야만인만큼 강한 근육과 굳건한 의지를 키웠다는 점에서 그는 재야만화한 것이다.³⁰⁾

베르트랑에게 알제리 정복과 식민화는 찬탈자 아랍인에 대한 응징이자 유서 깊은 라틴 아프리카의 수복일 뿐 아니라 식민지 알제리는 새로운 인종을 만드는 용광로, 혹은 “학교” 역할을 한다. 이 학교에서 적개심과 야만인의 활력과 영웅주의를 자신의 무기로 만든 식민자 라틴인들은 “육체

28) Louis Bertrand, *Le mirage oriental* (Paris : Perrin et Cie, 1910), p. 105.

29) Louis Bertrand, *Le sens de l'ennemi*, p. 22.

30) Louis Bertrand, “Nietzsche et la Méditerranée,” *Revue des Deux Mondes* (1er Janvier, 1915), p. 182.

적, 지적, 민족적, 사회적 재생”의 주인공이 된다.³¹⁾ 더 나아가 식민지 라틴인들은 쇠락하는 프랑스 민족을 재생의 길로 이끌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을 알린다. 바레스와 모라스의 민족주의는 조국 프랑스라는 공간을 벗어날 수 없었던 반면 민족주의자 베르트랑의 시선은 멀리 아프리카 식민지로 향해 있었다. 소설가로서 이름을 처음 알린 베르트랑의 『인종의 피』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라틴인” 혹은 “새로운 인민의 탄생”에 바친 헌사이다.³²⁾ 이 새로운 라틴 인종의 특징은 남성-전사-정복자로 요약될 수 있다.³³⁾ 남자다움, 힘, 인내, 의지, 자부심, 명예, 야만적 에너지, 반란, 미래에 대한 확신 등은 새로운 라틴 인종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베르트랑이 동원한 어휘이다. 그에게 재야만화는 새로운 인간형의 산실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이러한 베르트랑의 주장을 식민자의 정체성, 식민자 사이의 통합과 새로운 식민 지배 세력의 형성, 원주민에 대한 인종주의적 억압, 동화정책의 실패 등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반면 적개심과 재야만화, 새로운 인간형의 출현을 통한 민족의 재생에 대한 베르트랑의 생각은 식민지를 넘어 일반화되었다는 사실은 주목받지 못했다. 기존 연구가 베르트랑의 이념을 과시즘이라는 맥락 속에서 포착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스스로 입양된 아프리카인이자 자부했지만, 베르트랑은 프랑스에서 출발해 알제리를 거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 그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중동, 유럽의 곳곳, 그리고 아메리카로까지 발길을 옮겼던 열정적인 여행가였다.

식민지 알제리에서 만들어지고 버려진 적개심, 재야만화 같은 이념은 식민지를 넘어 베르트랑의 세계관 역할을 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무렵 출간된 『적개심』은 베르트랑의 관심이 아프리카 식민지를 벗어나 전 세계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에게 세계는 적대적인 국가들이 각축하는 정글이었다. 그는 현대 세계를 야만의 세계라 선언했다. “우리는 현대 세계의 조건에 적응할 것이다. 현대 세계는 대부분 야만의 세계이다.”³⁴⁾ 지중해 지역만 보더라도 신정정치, 전제적이고 군국주의적이며 가부장적인 아랍 국가들, 전제주의와 귀족주의로 무장한 독일, 오스

31) Louis Bertrand, *Les villes d'or*, p. 10.

32) Louis Bertrand, *Le sens de l'ennemi*, p. 20.

33) Peter Dunwoodie, “Louis Bertrand: Autopsie d'une dérouté,” *Études françaises*, 57-1(2021), p. 96.

34) Louis Bertrand, *Le sens de l'ennemi*, p. 23.

트리아,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가 발흥하는 가운데 프랑스인은 자신을 에워싼 야만 세력의 위협을 직감하지 못한다.

이슬람에 대한 베르트랑의 적의는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았으며 러시아 볼셰비즘과 결합해 한층 강화되었다. 1926년 출간된 『이슬람에 맞서서』에서 베르트랑은 중국, 모로코, 인도, 터키 그리고 소련에서 공산주의 혹은 민족주의의 기치 아래 오래된 동방의 야만성이 부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동방 야만성의 목표는 지배적인 서방 국가들을 제국주의로 비난하면서 파괴하는 데 있다.³⁵⁾ 베르트랑은 동방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이들을 불구대천의 적으로 인식할 것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는 책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낭만적이고 전통적인 동방에 대한 어리석은 숭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동양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라. **그들은 우리의 적이다...** 전 세계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여기는 우스꽝스러운 프랑스인들이 이러한 간단한 진리를 깨닫게 하라. 동양인은 우리의 적이며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머리 속에 새겨 넣어라... 이제 동방의 시장(Bazaar)의 문을 닫을 때이다. 우리의 목을 노리는 공동모지를 상상하는 일을 우리는 즐기지 않는다.³⁶⁾

그러나 프랑스를 위협하는 야만의 세력은 외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베르트랑은 프랑스를 병들게 한 것이 “민주주의적-인도주의적 바이러스”라 적시하며 내부의 적의 위협성을 경고하고 나섰다.³⁷⁾ 베르트랑이 볼 때, 프랑스 혁명이야말로 그러한 바이러스의 산실 역할은 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얼마나 기만적인가는 주변 국가들을 둘러보면 알 수 있다. 이들은 인권선언과 보편적 우애에 단호하게 등을 돌린 채 “신성한 이기주의”로 제국 건설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 혁명의 원칙들은 현대 세계의 모든 본능과 모순된다.”³⁸⁾ 민주주의는 프랑스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므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거해야 한다. 평화주의는 민족의 침체와 해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야만의 세계는 프랑스 민족이 건강을 회복하고 거듭날 기회이다. “프랑스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프랑스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자질들을 획득하는

35) Louis Bertrand, *Devant l' Islam* (Paris: Plon, 1926), p. 69.

36) Louis Bertrand, *Devant l' Islam*, p. 41, 강조는 원문.

37) Louis Bertrand, *Le sens de l' ennemi*, p. 13.

38) Louis Bertrand, *Le sens de l' ennemi*, p. 16.

것이다.”³⁹⁾ 한마디로 재야만화이다. 이 점에서 베르트랑이 주장하는 재야만화는 알제리의 식민자뿐만 아니라 식민지와 모국 프랑스인 모두를 새로운 인간형으로 거듭나게 하는 민족 경쟁이자 민족 혁명인 셈이다.

IV. 나치즘: 독일 민족의 재야만화

1936년 출간된 『히틀러』는 베르트랑의 이념적 역정에서 논란의 중심을 차지한다. 독일에 점령당한 기억을 간직한 로렌 출신으로서, 1914년 이후 독일의 사상적, 문화적 영향력에 경종을 울리는 글을 발표했던 그가 돌연 나치 독일과의 외교적 동맹을 권고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히틀러와 “히틀러주의”에 우호적인 태도를 넘어 공감과 찬사를 아끼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러시아 볼셰비즘에 대한 적개심과 위협에 사로잡힌 베르트랑이 나치의 선전과 선동에 현혹된 것인가? 『히틀러』의 출간은 베르트랑의 친구들마저 놀라게 할 정도의 갑작스러운 “전향”인가?⁴⁰⁾

베르트랑은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에 줄곧 우호적이었다. 그가 파시스트 이탈리아와의 관계에서 비공식 프랑스 외교관처럼 활동한 것은 라틴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명분과 함께 무솔리니 체제가 러시아 볼셰비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⁴¹⁾ 베르트랑은 두 나라 사이의 우호 증진을 목표로 1929년 설립된 프랑스-이탈리아 위원회(Comité France-Italie)에 가담했고 1931년 무솔리니의 측근이었던 마르케리타 사르파티(Margherita Sarfatti)의 초청으로 로마를 방문했으며 1932년과 1938년 두 차례에 걸쳐 볼타회의(Convegno Volta)에 참석했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과학자의 이름을 딴 이 회의의 목적은 이탈리아 파시즘의 보편성을 널리 선전하는 데 있었다.⁴²⁾

39) Louis Bertrand, *Le sens de l'ennemi*, p. 5.

40) Michel Grunewald, “Du rejet du ‘germanisme’ au plaidoyer pour le dialogue avec Hitler. L’itinéraire de Louis Bertrand face l’Allemagne,” Goergin, *Un écrivain français entre*, p. 229.

41) Christophe Poupault, “Louis Bertrand et l’Italie fasciste,” Goergin, *Un écrivain français*, pp. 209-220.

42) Louis Bertrand, *Mes ambassades. Espagne-Italie-Allemagne-Canada* (Paris: Fayard, 1954), pp. 249-255. Florian Wagner, *Colonial Internationalism and the Governmentality of Empire, 1893-198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p. 266.

독일에 대한 베르트랑의 태도는 이탈리아와 다르면서도 유사하다. 전쟁과 점령이라는 상처를 남긴 독일과는 달리, 그의 표현처럼 라틴 문명의 요람인 이탈리아에 대한 베르트랑의 관심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 파시스트 정권이 들어선 1920년대부터 베르트랑이 이탈리아와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독일에 대한 태도 변화의 시점 역시 히틀러의 집권과 무관하지 않다. 베르트랑이 독일의 젊은 법학자 한스 켈러(Hans Keller)가 조직한 민족주의자 인터내셔널(Internationale Arbeitsgemeinschaft der Nationalisten)의 런던회의에 참석했던 때는 1935년 7월이었다. 켈러의 주도로 1934년 4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결성한 민족주의자 인터내셔널은 록펠레제단뿐만 아니라 괴벨스(Joseph Goebbels)가 이끈 나치 선전부(Reichsministerium für Volksaufklärung und Propaganda)의 지원을 받았다. 켈러는 전간기 “나치 국제주의”를 누구보다 열심히 추진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⁴³⁾ 베르트랑이 1935년 9월 뉘른베르크 전당대회에 참석하게 된 것도 이 조직의 재정적 후원 덕택이었다.⁴⁴⁾

베르트랑이 이탈리아 파시즘과 독일 나치즘이야말로 러시아의 볼셰비즘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파제로 인식한 것은 사실이다. 1933년 한 기고문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젊은 파시즘은 미래의 정치 방식(formule)이거나 적어도 서구 문명에서 남은 부분을 구할 수 있는 정치 방식처럼 여겨진다. 나는 볼셰비즘과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점에서 히틀러, 무솔리니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⁴⁵⁾ 또 다른 곳에서 그는 이렇게 개탄했다.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볼셰비키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탈리아와 독일의 원기왕성한 저항 때문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이 자명한 사실은 정당의 궤변에 현혹되거나 오래된 편견에 지배되거나 아니면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⁴⁶⁾ 러시아 볼셰비즘의 위협에 맞서 프랑스-이탈리아-독일의 3자 동맹이 필요하다는 베르트랑의 주장도 같

43) Martin Kristoffer Hamre, “ ‘Nationalists of All Countries, Unite!’ : Hans Keller and Nazi Internationalism in the 1930s,”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2022), doi:10.1017/S0960777322000455.

44) Michel Grunewald, “Du rejet du ‘germanisme’,” p. 231.

45) *L’idée latine* (décembre, 1933), Christophe Poupault, “Louis Bertrand et l’Italie fasciste,” pp. 214-215에서 재인용.

46) Louis Bertrand, *Mes ambassades*, p. 270.

은 맥락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렇지만 무솔리니와 이탈리아 과시즘에 대해서보다는 히틀러와 나치즘을 다룬 글을 연속 기고하고 또 책으로 출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베르트랑은 독일 나치즘에서 무엇을 읽어낸 것일까? 그 책 자체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뉘른베르크에서 펼쳐진 다양한 행사를 보면서 베르트랑이 떠올린 것은 새롭게 탄생한 독일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민족 전체가 무장한 채 총동원된 강력한 독일, 소박하고 단순하면서도 언제나 어디든 대중과 같이 호흡하는 지도자 히틀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강력한 민족공동체였다. 지도자와 대중 사이의 이러한 유례없는 결합이 가능했던 것은 종교성 때문이었다. 대중에게 히틀러는 선지자였다.

나는 이런 열광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지배자가, 어떤 민족 영웅이 이 작은 사람, 군복 차림의 이 작은 사람만큼 환영받고 사랑받으며 흠모받고 숭배 대상이 된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군주처럼 수행단을 거느리고 있지만 그는 늘 노동자처럼 보인다. 이것은 인기가 아니라 종교이다. 그를 흠모하는 사람들에게 히틀러는 신성에 관여하는 선지자이다.⁴⁷⁾

이러한 독일 민족의 눈부신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베르트랑은 독일인의 강력한 의지, 니체, 괴테, 쇼펜하우어에게 표현된 의지가 낳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는 민족을 재생하고 부활하는, 한마디로 “민족혁명”을 향해 있었다. 베르트랑은 폴 데룰레드(Paul Déroulède), 에르네스트 르낭(Ernest Renan)으로 대표되는 프랑스인의 의지와 독일인의 그것을 극명하게 대비한다.

그러므로 독일의 재생을 향한 욕망은 프랑스의 복수의 이념과 다르다. 이는 히틀러주의와 데룰레드주의(Déroulédisme)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우리에게 문제는 적에게 패배한 뒤 그 적을 다시 제압하는 일, 병력과 군비의 문제였다. 히틀러에게 문제는 위에서 아래로까지 민족을 개조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우리의 참사 뒤에 르낭이 요구했던 “지적이고 도덕적인 개혁”의 문제 정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개혁, 전체주의적 개혁, 실제로는 거대한 민족혁명(révolution nationale)이었다.⁴⁸⁾

47) Louis Bertrand, *Hitler*, p. 48.

베르트랑은 나치즘의 목표가 외부와 내부에서 독일을 공격하는 야만 세력에 선명한 적개심으로 맞서는 데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가장 위험한 적이 국제주의적인 마르크스주의이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대중의 지지를 받아 정치적 행동과 선전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 금융을 장악해 모든 국가의 경제를 파괴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해방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지배적인 민족, 인종에 봉사할 뿐이다. 또한 마르크스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전체는커녕 오로지 도시의 육체노동자만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계급 전체정이다.

베르트랑은 마르크스주의와 유대인이 공모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바탕으로 나치즘의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를 옹호하고 나섰다. 민족의 분열과 쇠퇴의 주범인 마르크스주의는 “지배하기 위해 적을 약화시키고 분열시키는 이스라엘의 오래된 전략, 천년이나 된 전략에 훌륭하게 봉사한다.”⁴⁸⁾ 독일 여론이 마르크스주의와 유대인에 적대적이었던 까닭은 마르크스주의가 유대인의 이데올로기이며 이들이 국제 금융을 장악하기 위한 은밀한 수단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베르트랑이 볼 때 사회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 볼셰비키 가운데 유대인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나치는 잘 알고 있었다. 나치즘이 급진적인 수단인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를 내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베르트랑은 다시 한번 고비노의 인종주의 이론을 원용해 나치즘의 반유대주의를 옹호했다. 인종은 생리적 특징만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종은 다양한 기질의 복합체로서 혹은 도덕적, 지적 경향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환경이나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 유대인은 하나의 인종으로서 지적 우월감으로 세계 지배를 꿈꾸는 제국주의적 본능을 지닌 집단이자 자신의 국가를 건설할 정치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유대인의 제국주의는 볼셰비키 제국주의의 자연스러운 동맹이며 나치의 반유대주의는 반볼셰비즘과 다르지 않다. “요컨대 유대인의 이름으로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것은 볼셰비즘이다.” 베르트랑은 볼셰비즘이야말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이 직면한 가장 위험한 적이며 나치가 볼셰비즘을 저지하

48) Louis Bertrand, *Hitler*, pp. 85-86.

49) Louis Bertrand, *Hitler*, p. 8

는 유럽의 수호자란 사실을 기꺼이 인정한다. “독일인들이 불세비즘보다 더한 적, 유럽에 불세비즘보다 더한 적이 없다고 말할 때 나는 그들이 진심이라 확신한다. 그들의 민족사회주의(national-socialisme)가 불세비키의 침략에서 유럽을 구했다고 주장할 때 나는 그들이 과장하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 50)

베르트랑에게 나치의 민족혁명은 야만 세력에 맞서 적개심으로 뭉친 독일인들이 이룩한 재야만화의 두드러진 예였다. 베르트랑의 『히틀러』는 패전이라는 심각한 위기에서 독일 민족 재생을 목표로 내건 히틀러와 나치에게 마르크스주의, 불세비즘, 그리고 유대인이 왜 독일 민족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야만 세력인지, 그리고 그 야만 세력에 맞서 히틀러와 나치는 어떻게 적의 장점을 자신의 장점으로 활용해 적을 공격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재야만화, 다시 말해 민족혁명을 이룩한 독일 민족의 모습이 어떻게 뉘른베르크 전당대회에서 상징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드러났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히틀러』의 곳곳에서 베르트랑은 나치의 투쟁을 유대인의 인종주의에 맞선 인종주의, 테러에 맞선 테러로, 심지어 뉘른베르크 전당대회에서 보았던 행진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붉은 깃발의 대향연으로 사회민주주의의 그것을 완벽히 압도해 버렸다. 아 너희들이 붉은 깃발을 원하는가,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가 너희들을 붉은색에 역사하게 만들어 주겠다, 분노로 미쳐버릴 정도로 붉은색으로 가득 채워주겠노라!” 51)

맺음말: 식민주의와 파시즘

베르트랑이 나치즘을 불세비즘이라는 야만에 맞선 재야만화로 설명하는 방식은 독일의 역사가 에른스트 놀테(Ernst Nolte)의 “역사적-발생론적 전체주의 이론” 52)과 닮아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이는 마르크스주의 때문에 파시즘이 출현했으며 둘은 대립하면서도 서로를 모방해 닮아가는 역사적, 발생적 과정을 통해 전체주의적 성격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50) Louis Bertrand, *Hitler*, pp. 92-93.

51) Louis Bertrand, *Hitler*, p. 51.

52) François Furet, Ernst Nolte, *Fascisme et communisme* (Paris: Plon, 1998), p. 30.

다. 이러한 해석은 1963년 출간된 놀테의 유명한 저서에 이미 명확히 표현되었다. 놀테에 의하면 파시즘은 “반마르크스주의로 마르크스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반대되지만, 연관된 이데올로기로, 거의 똑같지만 유형적으로 변형된 방식으로, 항상, 그렇지만 민족적 자기주장과 자율성이라는 확고한 틀 안에서 마르크스주의라는 적을 파괴하려 한다.”⁵³⁾ 베르트랑과 놀테 모두 나치즘을 비롯한 파시즘의 폭력성을 상대화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베르트랑은 파시스트인가? 한편에서 그는 오로지 프랑스인의 관점에서, 프랑스의 이해관계만을 염두에 두면서 나치즘을 평가할 것이며, 자신은 “히틀러주의자”가 아니라 단언했다. 그러나 야만 세력의 존재, 그에 대한 적개심, 야만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야만 세력의 강점을 본받아 재무장하는 재야만화, 그리고 재야만화로 탄생하는 새로운 인간형과 같은 식민지 알제리를 배경으로 버려진 그의 이념들은 나치즘을 해석하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바탕이 되었다. 히틀러와 나치즘이 지배하는 독일은 재야만화한 독일이었다. 히틀러는 “변경의 인간이다. 모든 변경인과 마찬가지로 그는 다른 독일인보다 더 강한 인종에 대한 감각과 적개심을 지니고 있다.”⁵⁴⁾ 또한 베르트랑에게 히틀러는 야만 세력과 투쟁에서 새롭게 탄생한 인간의 전형이다. 그의 『히틀러』는 나치의 선전에 현혹된 결과물이거나 독일과 외교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차원을 넘어서 있다. 베르트랑 역시 마르크스주의와 러시아의 볼셰비즘이야말로 유럽 문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라 여겼다. 베르트랑은 나치독일을 볼셰비즘에 맞서 재야만화에 성공한 유일한 사례라 판단했다. 민주주의를 비롯해 프랑스 혁명의 유산에 극도의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던 베르트랑에게 나치즘은 프랑스가 그대로 모방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프랑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예시한다. 베르트랑이 『히틀러』 곳곳에서 나치 독일과 프랑스를 비교하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왜 우리는 이런 것을 프랑스에서 보지 못하는가? 이런 군중, 규율, 무엇보다도 이런 일치단결을. 이런 것들이야말로 천하무적의 힘이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⁵⁵⁾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베르트랑의 이념을 파시즘

53) Ernst Nolte, *Three Faces of Fascism: Action Française, Italian Fascism, National Socialism*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66), p. 40.

54) Louis Bertrand, *Hitler*, p. 36.

55) Louis Bertrand, *Hitler*, pp. 85-86.

의 범주 안에 넣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베르트랑 이념의 파시즘 여부를 판단하는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그의 이념이 식민주의와 파시즘의 관계를 재검토하도록 촉구한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베르트랑을 식민주의의 틀 안에 가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유럽의 파시즘과 식민주의가 별개의 현상이라는 전제 때문일 것이다. 베르트랑의 저서 『히틀러』가 역사가의 시선을 끌지 못한 이유 역시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파시즘과 식민주의를 별개의 현상으로 보는 방식은 오늘날 유럽의 정치세력을 이해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유럽 최대의 극우파 세력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의 민족전선/민족연합(Front National/Rassemblement National)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그 예이다. 프랑스의 역사가 방자맹 스토라(Benjamin Stora)와 알제리 전쟁을 다룬 작품으로 공쿠르상(prix Goncourt)을 받은 알렉시 제니(Alexis Jenni) 사이의 대화는 이 점에서 흥미롭다. 이들은 모두 민족전선의 이념적 기원이 식민지 알제리에 있다고 보고 민족전선이 승승장구하는 배경에는 프랑스 사회가 식민주의적 상상력, 심성,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데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식민주의와 파시즘은 별개이다. “민족전선의 이념과 프랑스가 지배한 알제리의 세 개의 도의 복잡한 사회를 조직한 이념 사이에는 보기 드문 유사성이 있다. 민족전선의 뿌리는 **파시즘**이 아니다...”⁵⁶⁾

베르트랑에게 식민지 알제리는 적개심, 재야만화 그리고 새로운 인종의 탄생과 같은 증오와 폭력, 파괴와 재생의 이념을 다듬고 버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는 식민주의가 파시즘과 같은 폭력적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는 요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베르트랑의 경우는 식민지 알제리에 뿌리를 둔 프랑스의 민족전선/민족연합에게 포퓰리즘(populism)과 같은 모호한 명칭을 선사하는 대신 식민 파시즘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부교수 kimywoo@knue.ac.kr

56) Benjamin Stora, Alexis Jenni, *Les mémoires dangereuses. De l'Algérie coloniale à la France d'aujourd'hui* (Paris: Albin Michel, 2016), p. 15, 강조는 원문.

주제어(Key Words)

루이 베르트랑(Louis Bertrand), 민족주의(nationalism), 나치즘(Nazism), 식민 파시즘(colonial fascism), 재야만화(rebarbarization)

투고일: 2024.4.25. 심사일: 2024.5.20. 게재확정일: 2024.5.21.

<국문 초록>

루이 베르트랑과 식민 파시즘

김용우

프랑스의 작가 루이 베르트랑(Louis Bertrand, 1866-1941)은 식민주의와 결합한 민족주의가 어떻게 fascism과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그는 모리스 바레스(Maurice Barrès), 샤를르 모라스(Charles Maurras) 같은 당시 민족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민족이 쇠퇴하고 있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베르트랑은 프랑스 민족의 재생 가능성을 식민지 아프리카, 특히 알제리에서 찾았다. 그에게 식민지 알제리는 라틴 아프리카(une Afrique latine), 적개심(sens de l'ennemi), 재야만화(rebarbarisation), 새로운 인종의 탄생과 같은 증오와 폭력, 파괴와 재생의 이념을 다듬고 버릴 수 있는 공간이었다. 말년에 저술한 『히틀러』는 알제리 식민지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진 베르트랑의 민족주의가 어떻게 나치즘에 대한 공감적 통찰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준다. 그간 파시즘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베르트랑의 이념은 식민주의가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의 요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예이다.

<Abstract>

Louis Bertrand and Colonial Fascism

Kim, Yong Woo

The French writer Louis Bertrand (1866–1941) is an important example of how nationalism in collusion with colonialism can lead to fascism. Like other nationalists of his time, such as Maurice Barrès and Charles Maurras, he was obsessed with the idea that the French nation was in decline. Unlike them, however, Bertrand saw in colonial Africa, and particularly in Algeria, the possibility of regenerating the French nation. For him, colonial Algeria was a space where he could hone and refine his ideologies of hatred and violence, destruction and renewal: *Afrique latine*, *sens de l'ennemi*, *rebarbarisation*, and the creation of a new race. His late book *Hitler* shows how Bertrand's nationalism, forged in the space of colonial Algeria, led to empathetic insights into Nazism. Although he has been largely ignored by fascist studies, Bertrand is a remarkable example of how colonialism can serve as a cradle for fascist ideology.

참고 문헌

1. 사료

- Bertrand, Louis, *Le sang des races* (Paris: Ollendorf, 1899).
_____, *La Cina* (Paris: Ollendorf, 1901).
_____, *Le mirage oriental* (Paris : Perrin et Cie, 1910).
_____, *Le sens de l'ennemi* (Paris : Fayard, 1917).
_____, *Les villes d'or. Afrique et siècle antiques* (Paris : Fayard, 1921).
_____, *Devant l' Islam* (Paris: Plon, 1926)
_____, *Hitler* (Paris : Fayard, 1936).
_____, *Sur les routes de sud* (Paris: Fayard, 1936).
_____, *Mes ambassades* (Paris: Fayard, 1954).

2. 단행본

- Belamri, Rabah, *L' Oeuvre de Louis Bertrand. Miroir de l'idéologie colonialiste* (Alger: Office des publications universitaires, 1980).
Dunwoodie, Peter, *Writing French Alger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Furet, François, Nolte, Ernst, *Fascisme et communisme* (Paris: Plon, 1998).
Goergin, Éric, dir., *Un écrivain français entre Europe et Afrique: Louis Bertrand 1866-1941* (Le Chesnay: Via Romana, 2022).
Kalman, Samuel, *French Colonial Fascism. The Extreme Right in Algeria, 1919-1939* (New York : Palgrave Macmillan, 2013).
Lanasri, Ahmed, *La littérature algérienne de l'entre-deux-guerres. Genèse et fonctionnement* (Paris: Publisud, 1995).
Lorcin, Patricia, *Imperial Identities. Stereotyping, Prejudice, and Race in Colonial Algeria* (Lincoln and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5).
McDougall, James, *A History of Alger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Press, 2017).
- Nolte, Ernst, *Three Faces of Fascism: Action Française, Italian Fascism, National Socialism*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66).
- Stora, Benjamin, Jenni, Alexis, *Les mémoires dangereuses. De l'Algérie coloniale à la France d'aujourd'hui* (Paris: Albin Michel, 2016).
- Wagner, Florian, *Colonial Internationalism and the Governmentality of Empire, 1893-198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3. 논문

- Dunwoodie, Peter, "Louis Bertrand: Autopsie d'une déroute," *Études françaises*, 57-1(2021).
- Ford, Caroline, "The Inheritance of Empire and the Ruins of Rome in French Colonial Algeria," *Past & Present*, 226, supplement 10 (2015).
- Lorcin, Patricia, "Decadence and Renascence: Louis Bertrand and the Concept of Rebarbarisation in Fin de Siècle Algeria," Kay Chadwick, Timothy Unwin, eds., *New Perspectives on the Fin de Siècle in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y France* (Lewiston: The Edwin Mellen Press, 2000).
- _____, "Rome and France in Africa: Recovering Colonial Algeria's Latin Past," *French Historical Studies*, 25-2(2002).
- Wilson, Stephen, "The 'Action Française' in French Intellectual Life," *The Historical Journal*, 12-2(1969).